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0.04.125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가로 건축의 표정을 바라보며.....

03 **종합**
사랑에서 _ 나는 돌덩이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04-05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2020년도 제54회 정기총회 4월 17일 위임총회로 개최
순천지역건축사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전라남도, 도시재생컨트롤타워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2020년 제33회 정기총회' 서면 총회로 개최
광주건축사회, 제33회 정기총회 표창 수상자 공표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건축계 인사들과 건축설계공모 선진화 방안 협의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오는 4월 16일 서면총회로 개최
전주지역건축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성금' 기탁
전주시, 40여 년 된 덕진공원 연화정 재건축 본격화 추진

10 **설계경기**
스테이션G 건립사업 설계공모

11 **종합뉴스**
특별기고 _ 우리시대 또 하나의 자화상
대한건축사협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제54회 서면위임 정기총회 성료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12 **독자광장**
한 편의 시 _ 곤고한 날에 기도하자
세상사는 느낌 _ 졸업작품을 맞이하는 자세
책 소개 _ '좋은생각' 월간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최신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가로 건축의 표정을 바라보며.....

조두상 논설위원

㈜프러스 건축사사무소
archplusjo@hanmail.net

- 1982-1989
  공간연구소
  올림픽 수영경기장, 경복궁 지하철 역사,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시립 보라매병원, 삼부빌딩 등
- 1995-2018
  목포대, 순천대, 호남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 1995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광주상무고등학교)
- 2001-2006
  건축설계워크숍 크리틱 초청강사
- 2002
  전남대 건축대학원 석사 졸업(건축계획)
- 2003
  제39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건축 부문) 심사위원
- 2004
  전남대 건축대학원 박사 수료(건축계획)
- 2014
  광주비엔날레 폴리2 설계 참여
  '혁명의 교차로'(에얄 와이즈만)
- 한국농어촌공사 건축 부문 자문위원

건축은 길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 길과 함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도로의 존재 가치는 필연적이며 논할 여지 없이 중요한 것이다.

길이란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해서 광장에 버금가는 넓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다양하다. 또한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 온 구도심의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며 형성된 길부터 도시설계 내지는 택지개발에 의해 곧게 뻗은 인위적인 도로에 이르기까지 길의 형태나 분위기도 시대 흐름에 걸맞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스케일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도로 폭에 비례해서 형성되고 결정되어 왔는데 이것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가로의 스케일에 맞는 건축의 규모나 디자인은 우리가 옷을 고를 때 자기 체격에 맞는, 자기 스타일에 어울리는 분위기의 옷을 고르듯이 가로 및 주변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매력 있는 도시의 풍경을 연출할 것이다.

우리는 거리를 거닐며 무의식중에 가로를 따라 쭉 늘어서 있는 건축물들의 원근감에 따른 투시 효과를 느끼며 살고 있다. 도심권의 도로를 따라 빽빽이 들어찬 건축물들. 간판의 홍수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숨 쉴 구석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최근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지안의 공지' 등 군데군데 오픈스페이스나 휴게 공간, 포켓 공원 같은 요소가 도입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제는 그러한 숨 쉬는 공간에서 실질적인 다양한 행위(Activity)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공간 확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건축물의 벽면이 지나치게 길고 무미건조하면 지루한 느낌이 들게 된다. 물론 건축물의 엄숙함이나 장엄함의 표현에 따른 예외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는 면을 분할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다시 말해 중앙 홀의 오픈된 공간을 비롯하여 최소한의 실내 휴게 스페이스나 옥외 발코니, 브릿지(Bridge), 필로티 등 공용 스페이스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축적인 요소가 내부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와 공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그것은 건축물을 액티브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생각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로에 서 있는 건축물 자체보다는 간판 및 광고 등 무질서한 설치물로 인해 참모습을 잃고 있는 건축물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누가 주인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다.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에 있어서도 나름 그 입면에 걸맞은 재료, 컬러, 질감 등 건축사의 많은 생각과 고민에 의해 채택되어 지는데 이를 무색게 하는 간판이 건축물 전면을 가득 채우다 보니 건축물 본래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간판 표정만 바라보게 된다.

물론 간판과 광고물 등은 대중에게 알리는 전달 매체로써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다소 작아지더라도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고유의 독창적 디자인에 입각한 통일감이 긴요하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비례감이 검토되어야 더욱 효과적인 전달 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확신해본다.

오늘도 길을 따라 세워지고 있는 건축물은 진정 우리 건축사들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고민이며 흔적이다. 또한 건축역사의 산물이며 시대적 문화 언어를 대변하는 길잡이일 것이다. 시간은 흘러도 건축물은 그 자리를 엄연히 지키며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건축물은 제각기 독특한 표정을 연출하면서도 거시적으로는 가로의 성격 및 도시의 특색에 부합되는 관계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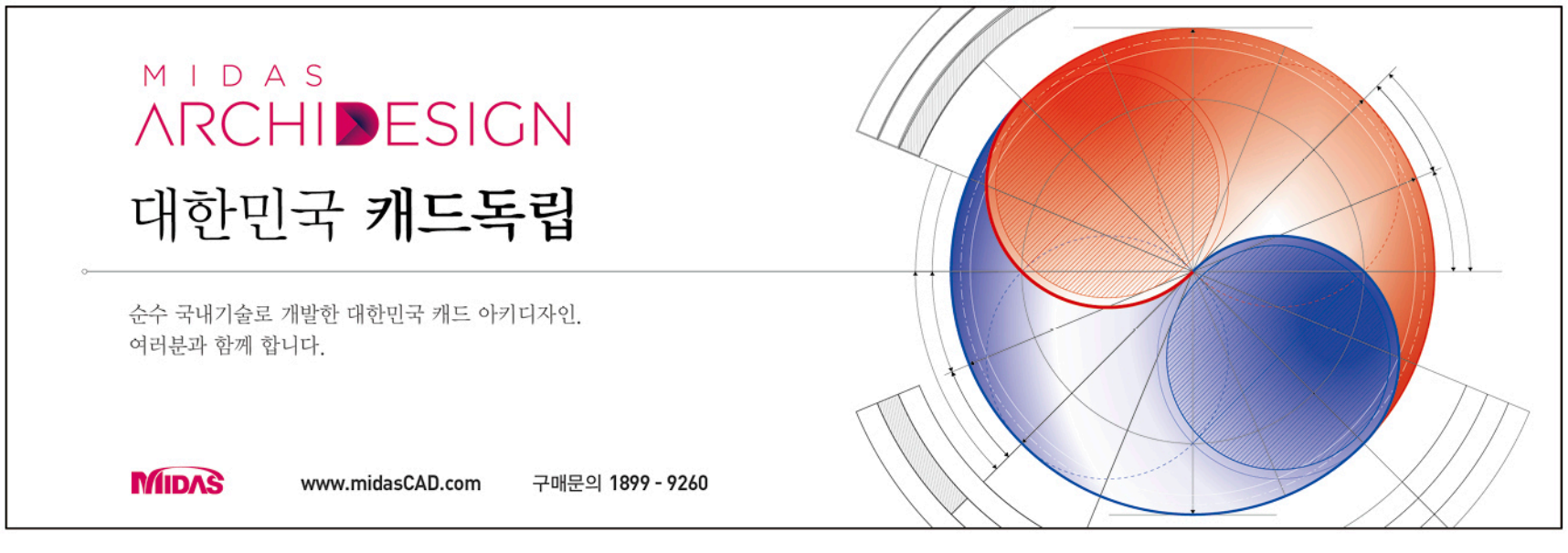
이것은 변화와 통일이며 가로의 스케일에 맞는 일련의 도시적 건축 언어로 표현되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색다른 개체로서 독창성을 연출케 하여 미래에 우리들에게 역사적 사명 의식을 다짐해야 한다.

가로 건축은 그 지역의 거주자나 방문자 누구에게나 그 도시의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다. 따라서 가로 건축의 표정은 그 지역 주민의 얼굴이며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비쳐지는 지역 건축문화의 산실이다.

거리를 걸으며, 가로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풍경에서 거리의 분위기를 음미하며 숨 쉴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양한 건축물의 생명력 있는 표정을 감상하며 편안한 가로 건축의 표정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건축사로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의 건축문화에 대한 진일보한 새로운 해석의 명제를 준비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한, 그리고 즐거움이 충만한 도시의 배경으로써 가로 건축이 재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0. 4.



사랑에서 _ 예순다섯 번째

나는 돌덩이

동물들은 생존본능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인간은 생존본능은 물론 이성을 가지고 지식 축적과 도구 사용이 가능한 동물이다. 보통은 이성이 작동되어 자기중심만이 아닌 상대를 고려하고, 공동체도 배려한다. '우리'라는 공동체로 살면서 '나'라는 개체의 생존 경계에서 줄타기할 때가 많다.

세상사에서 결정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갑'과 '을'로 구분한다. 그러나 삶은 '갑'과 '을'의 교차점에 늘 있다. 어떤 때는 본인이 '갑'의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도 있고, 어느 경우엔 '을'이 되어 어떻게든 갑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갑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할 때가 많다. 이런 게 인생이다.

'갑'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갑'이든 '을'이든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갑과 을은 돌고 돈다. 갑 속에서 을이 있고, 을의 생활 속에 갑질할 때도 있다. 인생은 이런 것의 연속처럼 보인다. 도교의 가르침이 '유무상생'(有無相生_있고 없음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란 뜻으로, 세상 만물의 이치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것을 가리키는 말)이듯이, 인생은 '갑을상생'(甲乙相生)이다.

우연히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이태원 클라쓰'다.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무모하지만 그래도 젊으니까 해볼 만한 도전(?)을 다루었다. 이곳에서 나온 시가 인상적이었다. 청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음미해 볼 만 하다.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 나는 다이아//

웹툰 작가 「광진」의 〈나는 돌덩이〉라는 시다.

인생사에서 어려운 일,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문하는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데 도움될 것도 같다.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견디고, 우회하면서 나를 홀로 빛나게 하는 돌덩이 같은 삶. 인생을 되는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는 삶.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려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 영원한 숙제 앞에 이 순간도 직면해 있다. 우리 모두에게 절대자의 은총이 있기를...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 본 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 등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그 환기설비가 갖춰야 하는 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6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법[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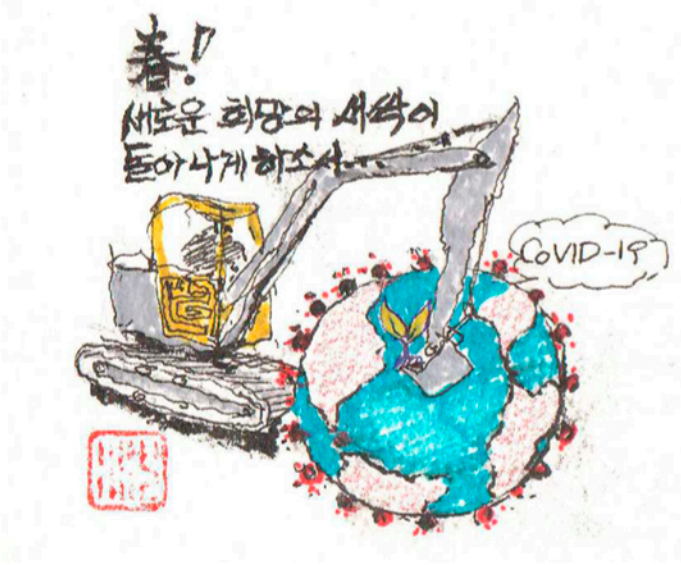
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한정·축소함(안 제25조제2항).

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다. 현행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신설).

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안 제77조의15제2항신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묵,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 집 인	강동영
부 편 집 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 문 위 원	서재형, 정명환
전 담 기 자	곽승국
논 설 위 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법, 김미영
편 집 위 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혜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등 록 번 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 록 일 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 고 신 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김병수 건축사 강천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문창식 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350,000원
정태복 건축사 부산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300,000원
정명옥 독자	20,000원
(주)대광판넬	350,000원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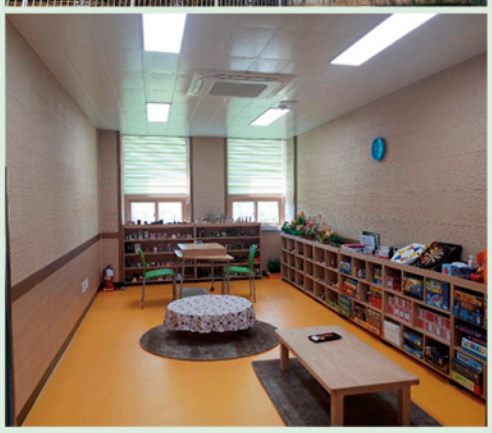
장성학교지원센터

박상윤 건축사 / (주)건상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86

Tel. 061-393-3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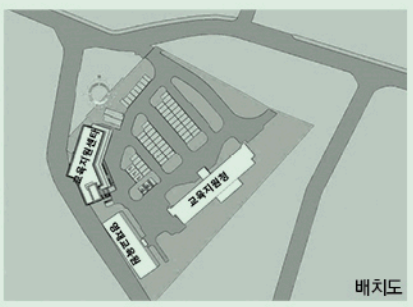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42 / 대지면적 : 7,832㎡ / 건축면적 : 363.20㎡ / 연면적 : 1,089㎡ / 건폐율 : 19.82% / 용적률 : 39.24%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새로운 조직 개편에 따른 지원센터 사업으로 장성군 상징색인 노랑 색채 계열 계획하여 밝고 진취적인 학생 이미지 부여하였다.
단순한 매스 형태에 깊은 처마에 의한 솔리드한 공간 부여와 자연스러운 매스 분절에 의한 변화를 부여한 계획을 하였다.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전남건축사회 2020년도 제54회 정기총회 4월 17일 위임총회로 개최

보성다비치콘도 세미나실에서... 각 지역건축사회 회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총회로 개최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3월 13일 화순 금호리조트 2층 남도홀에서 개최하기로 한 2020년도 제54회 정기총회를 오는 4월 17일 보성 다비치콘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가 아닌 각 지역건축사회 회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총회로 개최되며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지역건축사회 회장이 참석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서 부의안건으로 회칙 개정의 건과 2019년 수지결산서(안) 승인의 건, 2020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 5개의 안건이 심의되는데, 특히 회칙 개정의 건에서는 부회장 1인을 2인으로 두는 임원 개선과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준용에서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는 개정내용을 심의한다.

한편, 정기총회 당일 개최하기로 한 前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초빙교수인 한승원 씨의 '현대인의 윤리 의식과 문학적인 감수성'이란 주제의 건축사실무교육 윤리교육은 위임총회 개최 관계로 취소됐다.

순천지역건축사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지난 4월 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회원 성금 모금액 200만 원 기탁...

순천지역건축사회(회장 조익선)는 지난 4월 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회원들의 성의를 모은 성금 200만 원을 순천시에 기탁했다.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순천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순천시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 등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될 예정이다.

한편 순천지역건축사회는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순천시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에 따른 자문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순천시 건축경관계획 등 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순천시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다.

전라남도, 도시재생컨트롤타워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정책제안·시책발굴 등 주민 참여... 도시재생 가속도

전라남도는 지난 3월 30일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광주전남연구원에 개소했다.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특화 도시재생모델 발굴을 비롯해 정부공모에 선제적 대응,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동체사업 실행컨설팅 등의 기본적인 업무추진과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역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해 재생의 필요성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규모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역 일자리창출과 공동체 회복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센터 조직은 정책교육홍보팀과 사업연구계획팀 등 2개팀 5명으로, 광주전남연구원에 위탁 운영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도시재생사업 46곳(5천712억 원)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 공모에 뉴딜사업 10곳과 소규모재생사업 6곳 등 총 16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온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도내 시군을 화상으로 연결해 공모가이드라인 설명회에 이어, 지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지원협의회' 컨설팅을 서면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전라남도, '태양광에너지 설치비 지원' 대폭 확대

도내 1천 500여 가구를 대상, 보조율 55%서 70%로 상향... 설치 가구 부담 완화

전라남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태양광을 비롯해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를 희망한 도내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 지원 비율을 기존 55%에서 70%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로 설치비의 55%를 보조했으나 올해 보조율이 70%로 상향, 설치 가구는 30%만 자부담하게 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 42억을 투입해 1만여 가구에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도비 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에너지원 용량별로 상이한 설치 비용에 맞게 도민들의 자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군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3㎾ 기준)은 106만 원, 태양열(14㎡ 기준)은 102만 원, 지열(17.5㎾ 기준)은 210만 원, 연료전지(1㎾ 기준)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실제로 주택에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352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금 151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발전설비가 설치된 가구는 매달 4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4~5년 이내 자부담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신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시공업체와 설치계약을 마친 후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62-602-0020)과 시군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23)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 '전 지역 확대'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 한옥 신축 보조금 융자금 포함 최대 2억 지원

나주시는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 초 시는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 원(시비 4,500만 원, 융자금 1억 5,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조선 시대 객사 금성관(보물 제2037호)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있는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왔다. 시는 읍성권 지구 내 한옥 신축 시 여신 규정에 따라 최대 2억 원(도비 1,500만 원·시비 8,500만 원·융자금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읍성권 외 관내 분포한 한옥마을도 최대 2억(도비 1,500만 원·시비 4,500만 원·융자금 1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나주시 전 지역에 한옥을 신축할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최대 4,500만 원 시비 보조금과 융자금 1억5,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옥 보조금 지원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순천시, '2020년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

2016년 이후부터 사용승인된 관내 건축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0일간 접수

순천시는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기본요소인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품격있고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2020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을 공모한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은 올해 6회째로 '순천시 건축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2년마다 공모하고 있다. 응모 대상 건축물은 2016년 이후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사용승인 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이다. 접수는 10월 14일부터 10일간 접수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거와 비주거 부문에 각각 우수작 1개소와 가작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설계자와 건축주는 순천시청 건축과에 응모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심사용 패널 등 응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2003년부터 '아름다운 건축상'을 선정해 지금까지 23점을 시상했으며, 경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7년부터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제도를 정부 지침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등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양시, 마동 지구단위계획 완화로 건축행위 활발하게 추진

와우지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연계 등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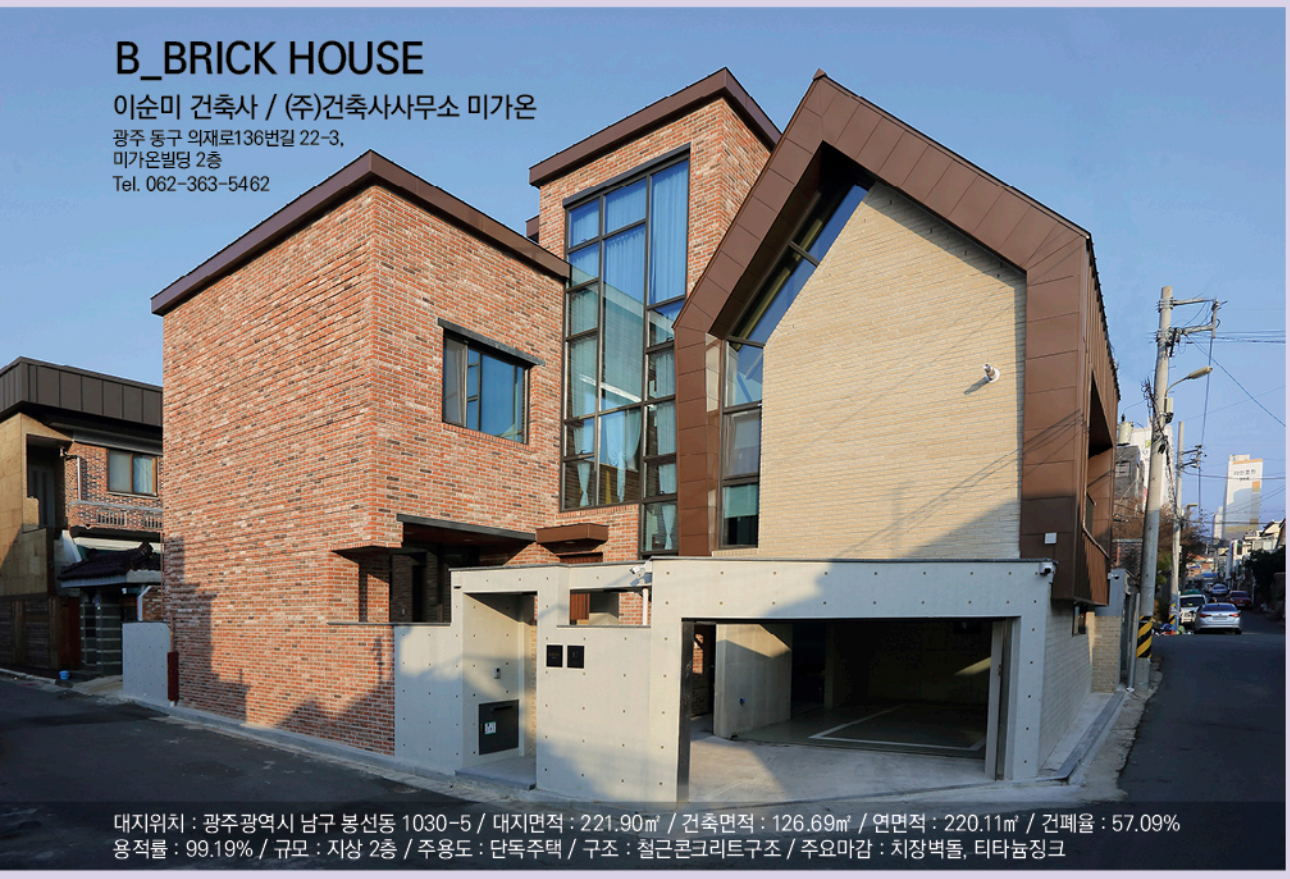
광양시는 지난 3월 25일 마동지구 활성화를 위해 건축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단독주택용지를 중로 이상 도로 인접지인 가로형과 내부주택지인 내부형으로 나누고, 당초 1층에 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층수를 가로형은 지상 3층, 내부형은 연면적의 50% 이내까지 완화했다. 또한 가로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당초 200%에서 250%로 상향하고 준주거용지의 용적률을 당초 400%에서 500%로 상향해 주거용지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 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타 지자체 사례조사와 주민설명회,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해 2020년 1월 16일 최종 고시했다. 이로써, 중마 신시가지에서 와우지구, 광양제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도시 개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마동지구는 총 54만 7,000여㎡의 면적에 주거용지 25만 8,000여㎡(47.2%), 기반시설용지 28만 9,000여㎡(52.8%), 체육공원 4만 5,000여㎡를 조성하여 지난 2015년 3월 준공됐다. 준공 이후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나대지인 상황(건축률 11.3%)이었으나, 고시 이후 대규모 주차타워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변경)**
  - 이정호 건축사 / 희원도시 건축사사무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1-3
  - 양인승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주) / 전남 순천시 왕지3길 18-28, 202호
- **부고**
  - 문성식 건축사 / AUD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3월 15일(일)



광주건축사회, '2020년 제33회 정기총회' 서면 총회로 개최

오는 4월 16일 개최, 시회·신협·연금관리회 서면결의서 접수 진행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3월 30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제3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된 제33회 정기총회를 오는 4월 16일 서면총회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면결의서와 총회자료, 감사투표용지가 담긴 우편물을 4월 3일 발송하였으며 4월 16일까지 서면결의서와 감사투표용지를 회신받고 있다.

총회 결과는 4월 20일 이후 공지될 예정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회원에게는 건축사실무교육 자기 계발 1시간 인정과 기념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와 함께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제38차 정기총회와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제14차 정기총회도 같은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

광주건축사회, 제33회 정기총회 표창 수상자 공표

건축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등 외부인사 11인 선정, 시상은 추후 별도 통지

광주건축사회는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및 기타인사 11인을 제33회 정기총회 외부인사 표창장 수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광주건축사회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이사회의를 진행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인을 선정했고, 이와 임기가 만료되는 7인의 퇴임 임원과 1인의 감사에 대해서도 공로패를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관계로 외부인사에 대한 시상 방법은 추후 별도로 통지하기로 하였으며, 퇴임 임원과 감사에 대한 시상은 오는 4월 20일, 제4회 이사회의에서 진행된다. 다음은 표창 대상자 명단이다.

구 분	소속 및 성명	비고
공무원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과장 김종호	감사장
	광주광역시 계림1동 동장 성경훈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장 김인호	
	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설지원과 주무관 심정웅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주무관 이 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건축과 주무관 윤재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주무관 최희담	
언론사	광남일보 편집국장 김상훈	
	광주일보 문화부 부국장 김미은	
	전남일보 경제부장 박간재	
관계기관	북부경찰서 수사과장 조윤희	
광주건축사회 퇴임 임원	건축사사무소 선명 건축사 강석훈	공로패
	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주) 건축사 이경행	
	한샘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경양	
	라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경락	
	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유승희	
	수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조휴환	
	(주)창조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보은	
퇴임 감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건축사 강형선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건축계 인사들과 건축설계공모 선진화 방안 협의

지난 3월 18일 광주건축사회에서... 개선안 시에 제출해 고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지난 3월 18일 광주건축사회 4층 소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이상배 국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회장,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유우상 회장, 광주시 건축위원회 주석중 위원, 나무심는 건축인 신정철 대표 등 광주지역 건축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건축설계공모 선진화를 위한 협의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광주건축사회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건축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대두된 건축설계공모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이 논의됐으며, 이 자리에서 이상배 국장은 "지역 건축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건축 설계공모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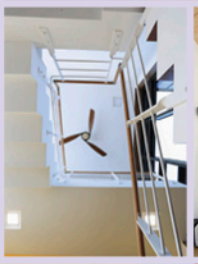
현행 건축 설계공모방식은 설계자의 참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매번 논란이 되어 건축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설계공모 설계비 추정금액별 개선사항이 논의되었는데, 금액별 공모방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위원 구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도 타지역 심사위원 비율 확대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모참가자들의 사전 접촉금지 원칙화, 심사위원 참여 횟수 제한 등이 논의됐다.

또 당선작 실시설계 시 최대한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타지역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는 경우 광주지역 건축사사무소와 협업 시, 협업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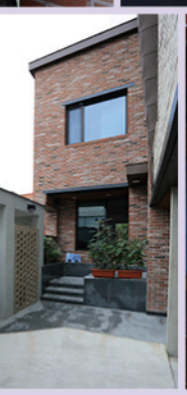
이상배 국장은 "건축설계 공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해당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강현구 회장은 "광주시 시민들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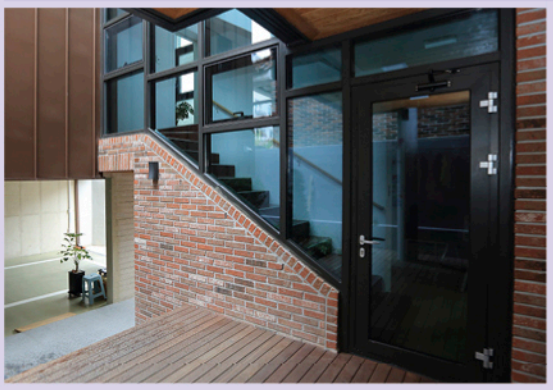
한편, 이번 협의 회의에서 나온 방안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광주건축사회 주도로 해당 내용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표준지침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부서에 건의하였고, 현재 고시(예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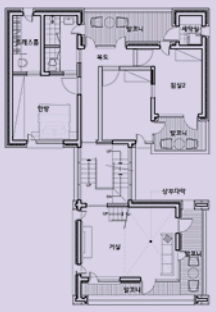
광주 봉선동 조용한 골목 안에는 아이 둘과 젊은 부부가 날마다 행복을 지으면서 사는 브라운 컬러의 벽돌집이 있다. 인근에 오래된 많은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새로이 짓게 될 집은 너무 튀지 않으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 선정이 중요하였으며 모퉁이 도로변으로부터 가족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요구되었다.

건축주와 상담 중 부모님이 조적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의 집을 직접 시공하시겠다고 하여 재료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벽돌을 선택하게 되었다. 가족이 많이 사용하는 식당은 도로변에서 외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지 안쪽에 배치하였으며 중정을 두어 즐거운 야외 식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계단실은 동적공간인 거실동과 정적공간인 침실동 사이에 배치하여 영역성을 확보하였으며, 스킵플로어 형식을 도입하여 가족들 간의 동선을 짧게 하였다. 이는 손쉬운 만남과 가족 간의 시선 소통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두 동의 형태는 네모와 세모로 그리고 재료는 벽돌과 징크 마감으로 다른 듯 보이나 같은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꾀하였으며, 주변의 오래된 주택들과 함께 하나 되는 풍경이 되고자 하였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광주건축사회, 건축설계용역 입찰공고 시 설계비 산정내역 공개 요청

지난 4월 9일, 광주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에 개선요청 민원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4월 9일 광주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에 건축설계용역 입찰공고 시 설계비 산정내역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접수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건축설계용역 입찰공고 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용역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는 업무가 용역비에 누락된 경우가 빈번하여 낙찰된 회원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관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손실을 감수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너지절약계획서 인증수수료, BF인증수수료, 지반조사비용 등)의 반영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시청과 5개 구청 모두 해당 민원을 접수하면서 관계부서에 전달하여 개선요청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회신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회원 신찬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우창), 기상청장 표창 수상

광주지방기상청 청사 증축공사 감리자로서 우수활동과 건축전문가로서 타의 모범 공로로

광주건축사회 소속 신찬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우창)가 최근 광주지방기상청 청사 증축공사 감리자로서 우수한 활동과 건축전문가로서 타의 모범이 된 공로로 기상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적내용에 따르면 신찬균 건축사는 2019년 4월 9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광주지방기상청 청사 증축공사 비상주 감리용역'의 공동수급을 총괄하며, 비상주 감리임에도 직접 현장감리에 솔선수범하여 실무적 경륜과 내공으로 공사관계자 간 협의와 기술지도 확인 등을 주도했다.

또 기초구조물의 장애 요인 출현에 따른 시공사의 실정보고에 안전조치 선행의 기존 옹벽에 어스앙카 보강공법을 적용한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강력하게 관철시키고 보강공사를 실시(인장시험 상주감리)한 후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공기로 목적건축물이 설계변경 없이 당초의 설계대로 원만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본관동과 연결될 통로 구조 및 마감과 부대설비시설의 연계 및 공공건축물로서의 신구건축물의 디자인 요소를 연계시켜 전체적 조화가 되도록 제안하여 관철시키는 등의 건축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자문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목적건축물이 국가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중심의 기능성과 편의성 그리고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만한 공사추진에 합리적인 조력자의 역할과 주어진 소임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건축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이 타의 모범이 되어 그 공로가 인정되었다.

한편, 신찬균 건축사는 1997년 12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98년 3월 입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광주건축사회 이사와 광주건축사신협 이사, 지도점검위원회 위원장, 북구협의회 회장, 광주건축사신협 여수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과 광주건축사회 공공건축물발주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광주지역 편집위원 모집 안내(연장)

저희 건축문화사랑 신문에서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을
새롭게 열어 가실 광주지역 신임 편집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건축문화사랑 2020년도 광주지역 편집위원 공개모집

- 모집구분 : 광주지역 건축사 편집위원
- 모집인원 : 3인
- 모집기간 : 2020년 4월 29일(수)까지
- 지원자격 : 광주건축사회원 누구나 가능
- 혜　　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지원방법 : 이력서 첨부하여 이메일(gjkira@empas.com)로 제출
- 문　　의 : T. 062-521-0025~6(담당자 : 곽승국 전담기자)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정성기 건축사 / 정성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경열로 38, 도영빌딩 6층 602
- 최시화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온 /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188번길 37-1, 3층
- 홍봉기 건축사 / 삼우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A동 1006호

• 변경(소재지)
- 김민호 건축사 / 너울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풍암1로 7, 502호
- 조두상 건축사 / (주)프러스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03, 7층 704호

• 변경(상호)
- 정명환 건축사 /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 (주)건축사사무소 지읒

• 결혼
- 정정상 건축사 / 정상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04월 04일(토)

• 부고
- 김상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공간 / 본인사망 - 03월 08일(일)
- 정광일 건축사 / (주)동산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3월 08일(일)
- 허창회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진영 / 빙모상 - 03월 26일(목)

전북건축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오는 4월 16일 서면총회로 개최

4월 10일까지 서면 투표에 의한 결과 집계 후 임원 및 지역회장 등 참석으로 총회 진행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오는 3월 26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54회 정기총회를 4월 16일 서면총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제1회 이사회의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총회 관련 결정사항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세 및 정부의 대응방침 등을 검토하여, 정기총회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회장에게 위임하여 개최하기로 의결한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로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4월 10일까지 서면결의서를 취합한 후 결과를 집계하여 4월 16일 전북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임원 및 지역회장, 선거관리위원의 참석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건축사회도 오는 4월 23일 서면총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건축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급적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서면 결의 등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권고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히며 회원들의 많은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북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신임 감사에 건축사사무소 태호건축 소태호 건축사가 단독후보자로 출마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성금' 기탁

오는 3월 24일 전주시청에서 방문, 김승수 시장에 성금 500만 원 전달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태원)는 지난 3월 24일 전주시청을 방문하여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주시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여 전주시 이웃사랑 나눔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이번 전달식에서 이태원 회장을 대신하여 성금을 전달한 이성열 총무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약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건축사회는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기탁과 아울러 경로당 도배·장판 교체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주시, 40여 년 된 덕진공원 연화정 재건축 본격화 추진

전주시, 지난 4월 9일 덕진공원 연화정 철거 시작, 전통한옥 형태로 재건축 추진

전주시민과 40여 년간 함께해 온 덕진공원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연화정이 전통 정원과 한옥 등 전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 재건축된다. 동시에 현 연화정은 철거된다.

전주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덕진공원의 노후화된 연화정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공사를 이달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덕진공원 연화정은 1980년에 3층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한식기와를 얹은 형태로 건립돼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연화정을 재건축하기 위해 시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상황이며, 철거 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새롭게 건축될 연화정은 연못 중앙부의 기존 섬을 넓혀 건축면적 393.75㎡ 규모의 전통한옥 형태로 건립된다. 특히,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전통정원이 조성되고 연꽃을 감상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누마루도 마련된다. 또 전통한옥의 미를 강조하기 위해 연화정의 주변에는 전통 울타리를 두르고 한옥 대문이 설치된다. 시는 덕진공원 연화정 재건축과 연화교 재가설을 통해 덕진공원이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주차공간 부족 해결 위한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진행

아파트 주차공간 확충 시 1면당 50만 원, 최대 20면 1,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전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에 1,000만 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 골목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063-281-5024)로 방문하거나 전화

쉼터

정근양 건축사 / 아인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44-4, 3층

Tel. 063-274-2990

대지위치 : 충남 보령시 신흑동 2306-6번지 / 대지면적 : 364.30㎡ / 건축면적 : 178.75㎡ / 연면적 : 496.30㎡ / 주용도 : 기타숙박시설(관광펜션)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제주석 및 징크마감, 점토벽돌

문의하면 된다. 이후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은 올해 12월 10일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전주시 해피하우스 노송센터, 풍남초 인근에서 새 출발

기존 노송동 인봉경로당 내에서 전주풍남초교 인근으로 이전해 4월부터 운영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결해왔던 전주시 해피하우스 노송센터가 전주풍남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한다. 시는 기존 노송동 인봉경로당 내에 있었던 해피하우스 노송센터를 전주풍남초등학교 인근(완산구 견훤왕궁로 15)으로 옮겨 4월부터 운영을 재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노송동 인봉경로당 내에서 운영해왔던 해피하우스 노송센터는 노송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에 의해 인봉경로당 건물이 활용될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주풍남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달부터 약 2주간 내부 수리와 리모델링을 진행해 다음 달 초에 전주풍남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을 재시작할 예정이다.

해피하우스 노송센터는 종전과 같이 진북동, 풍남동, 중앙동, 중화산 1·2동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들의 보수를 지원하게 되며 지난해에는 총 792세대 4,07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해피하우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전기누전 △수도누수 △주방싱크대 △환기시설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전문 인력이 방문해 보수·점검을 무료로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김제시, '2020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본격 추진

올해 2억 2천만 원의 예산 확보해 60여 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

김제시는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역건축계 등과 협의하여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 능력이 부족한 관내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한 보금자리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김제시는 2010년부터 38억여 원의 예산으로 1,180여 가구에 도배, 장판, 창호, 주방, 욕실, 화장실, 벽체, 지붕개량 등 개보수가 시급한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여 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0-94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3. 26. ~ **2020. 4. 16. 까지**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 중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제출방법 : 방문, e-메일, 우편 접수 (2020. 4. 16. 18:00 까지)

○ 방문/우편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주택건축과)

○ e-메일 : sgy20@korea.kr

5.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 자본금을 보유 증명 서류(안전진단 기관 등록에 한함)

○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 이수 수료확인증

6. 기타사항

○ **문의처 :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건축문화팀(☏063-280-3637)**

○ 기타 세부 내용은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알림광장 공문시행 211759번 참고

2020. 3. 26.

전라북도지사

전북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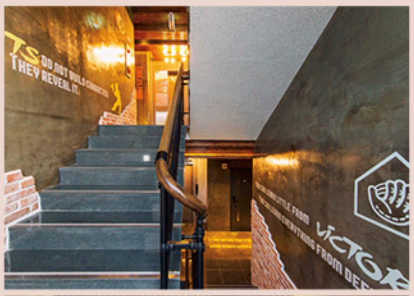
- 김건옥 건축사 / (유)케이오케이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정인2길 12
- 이행옥 건축사 / 새롬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15
- 배철용 건축사 / 환경그룹 건축사사무소 청 / 전북 익산시 배산로 71-4
- 김종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케이플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 339호

• 결혼

- 김정두 건축사 / 두성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4월 18일(토)

• 부고

- 이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원건축 / 장모상 - 03월 30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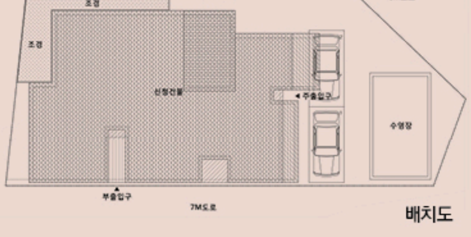
"본사업부지는 대천 해수욕장 인근 부지로써 관광객들의 숙박 등 편의시설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해수욕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계획하였다.

내·외부 마감은 각 실별에 맞게 가족 단위 또는 청소년들의 시선에 맞게 세련되고 고풍스러운 재질로 마감하였다.

또한, 앞마당에는 간이 수영장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옥상, 다락 등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3층 평면도

다락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스테이션G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우수작 : 원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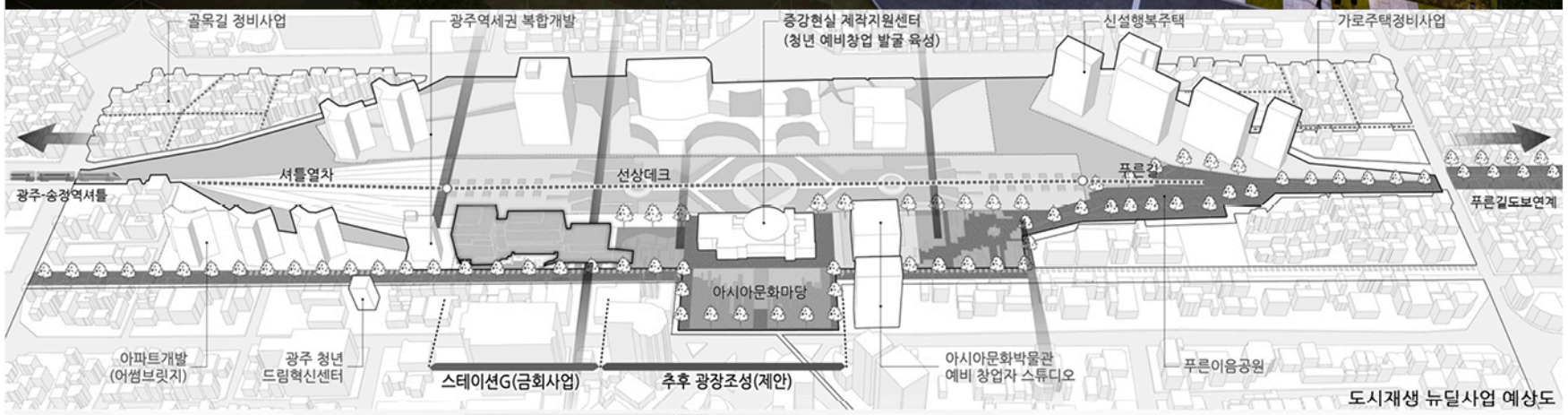
본 설계공모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의 일환으로 지식정보산업 관련 창업·중소기업 등 입주 및 지원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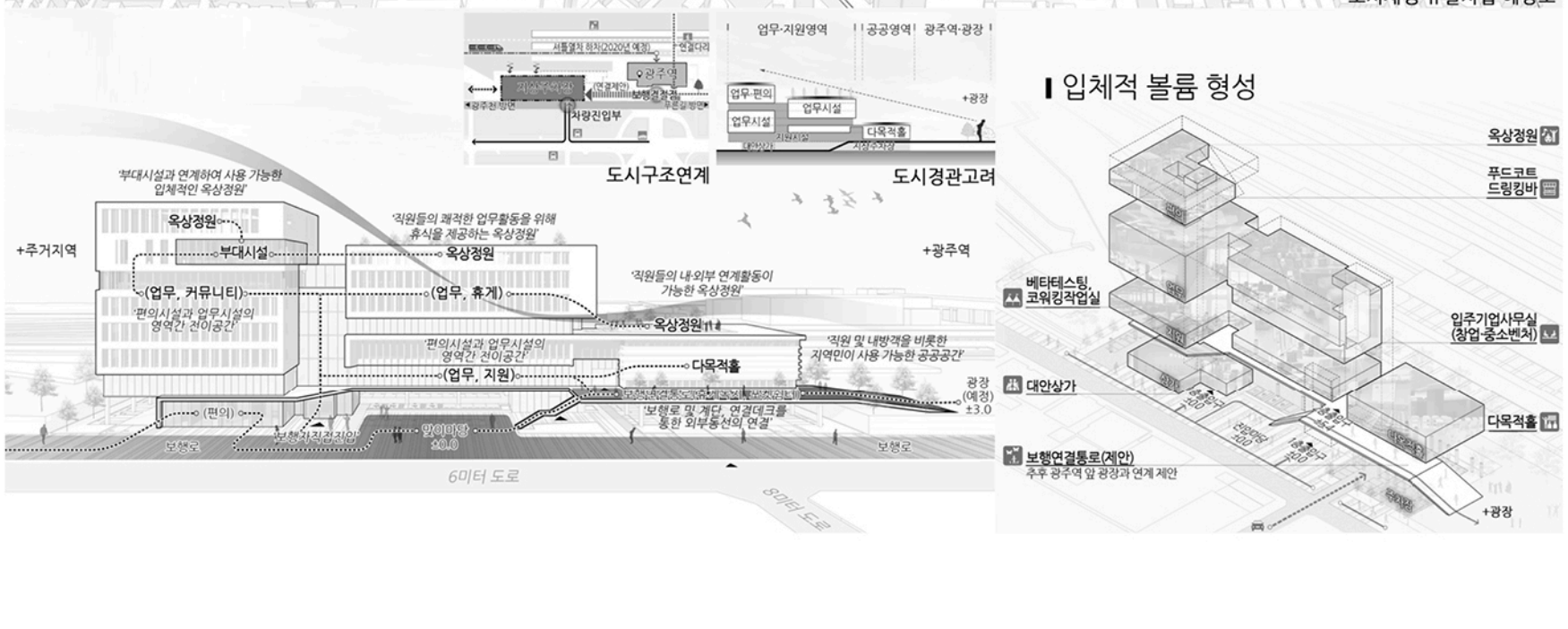
심사위원 : 박상현(한밭대), 정지영(신라대), 추승연(경북대), 권제중(대구대), 이승용(목원대), 박현정(신라대), 최종수(동국대), 이강민(충남대), 박재형(목원대)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11-8번지 일원
- 대지면적 : 5,500.00㎡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철도
- 연면적 : 11,000.00㎡ (±10% 이내)
- 용　도 : 업무시설
- 공사비 : 27,060백만 원 (VAT 포함)

당선작

양병범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특별기고

우리시대 또 하나의 자화상

최상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ybdcsc@naver.com

벚꽃이 만발한 4월,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 찾아왔다. 눈에 좀 띌 만하다 싶은 주요 네거리에 우뚝 서 있는 건물마다 대형 인물사진들이 보란 듯이 내걸려 있다. 디지털사진 출력기술 탓인지, 총선 후보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마치 건물 크기만 하게 커졌다. 그리고 뭐가 그리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한지 다들 활짝 웃고 있는 표정들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가 아니라면, 건물들이 마치 복면을 쓰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아니, 본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건물에 탈바가지를 씌워놓은 것 같기도 하다. 속셈이야 어떻든 거의 모든 후보들이 안동 하회탈처럼 환하게 웃고 있다. 정치판인지 탈춤판인지 모르겠다.

지금 시민들은 "코로나19"를 조금이라도 막아본답시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이른바 "KF94"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불안해하며 종종걸음을 치고 있건만, 걸개 사진에서 총선 후보들은 희색이 만면하다. 민심은 천심이고 정치는 바로 그 밑바닥 민심의 흐름을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깊숙이 똬리를 틀고 있는 유권자들의 속마음은 헤아려보지 않은 것 같다.

환기를 하고, 채광의 통로가 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조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고려해서 만든 창문까지 저렇게 대형 걸개 사진으로 가려놓은 지금, 우리 시대의 거리풍경은 확실히 달라졌다. 비록 선거 당일까지의 한시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건물 이미지가 한순간에 뒤바뀌어버린 것이다.

물론, 그 건물의 주인들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것이다. 건물이 그동안 단순히 전세를 받고 월세만 받던 고리타분한 임대업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젠 선거철마다 본의 아니게 새로운 부업의(?) 시대까지 창출되었으니 말이다. 비록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을망정, 얼마나 살뜰하고 감사한 일이랴?

이럴 줄 알았더라면 건물을 더 크고, 더 넓고, 또 더 높게 설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진다(?). 그러나 그동안 건물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광고 간판 때문에 훼손되었던, 건축설계 이미지와 도시경관은 다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건축사들은 건물에 내걸리게 되는 광고 간판 뿐만이 아니라, 잦아진 선거철마다 쇄도하는 대형 걸개 현수막의 위치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설계조건을 거저 떠맡은 꼴이 되어버렸다.

설사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건축물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 우리 시대의 실상이 투영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도심 곳곳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막바지 선거유세에 여념이 없는 탓에, 한층 더 요란해진 시내를 헤집고 돌아 나오다 보니 우리 건축사들이 만든 저 건축물조차 "코로나19"를 걱정해야 하는, 참으로 해괴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그렇게 밤잠 설쳐가며 애써 디자인한 건축물마저, "코로나19" 때문에 요란한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아니, 오로지 단체율동밖에 보여줄 게 없는 이 정치판의 거리유세에서, 건축물이 때로는 백댄서로 취급받는 것 같기도 했다.

아, 그랬구나. 그간 제대로 주목조차 받지 못하던 우리 건축물이, 이 혼란한 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생명체로 인정받은 게로구나. 그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도록 설계해놓았는데도, 다들 다짜고짜 달려들어 마스크를 통째로 뒤집어 씌워놨으니 말이다. 필시 우리 건축물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걸 몹시 두려워하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건축사들은 졸지에 슈퍼전파자를 만든 조물주가 된다. 이를 어쩌랴.

대한건축사협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제54회 서면위임 정기총회 성료

지난 4월 9일 건축사회관에서 서면위임 506명, 참석 60명 등 총 566명으로 성원 진행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9일 건축사회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서면위임 총회로 축소하여 개최했다.

대의원 서면위임 506명, 참석 대의원 60명 등 총 566명으로 성원되어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과 윤리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3차(2019~2023) 협회발전기본계획 2020년도 실천계획(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 총 8개의 안건 중에 윤리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안건 자체를 삭제하고 6개의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했다.

특히 임원 선출의 건에서 신임 감사로 충북건축사회 소속의 이재삼 건축사((주)강산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다.

신임 이사로는 권연하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서울)를 비롯하여 김수경(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서울), 박용묵((유)다산 건축사사무소/전남), 박원근((주)인터씨티 건축사사무소/서울), 손근익(건축사사무소 선건축/대전), 신만석((주)건축사사무소 광장/경기), 윤희경((주)삼희 건축사사무소/인천), 이정희(아크 건축사사무소/서울), 조용범((주)범 건축사사무소/경남) 건축사 등 총 9인이 선출됐다.

이에 앞서 퇴임 임원에 대한 공로패 및 우수지역건축사회 단체표창 수여와 전회 회의록 승인, 추대회원 추대 보고, 주요업무 보고, 감사 보고 등도 진행됐다.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3월 초 발간했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하여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1670-1507)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 집계 발표

총 7,243,472동(연면적 38억 6천만㎡), 전년 대비 동수 0.7% 증가, 연면적 2.8% 증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51,560동(0.7%) 증가한 7,243,472동, 연면적은 106,743천㎡(2.8%) 증가한 3,860,871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50,167천㎡(3.0%) 증가한 1,740,232천㎡이고, 지방은 56,576천㎡(2.7%) 증가한 2,120,639천㎡이다.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839,976천㎡(21.8%), 공업용은 3.1% 증가한 413,999천㎡(10.7%), 주거용은 2.5% 증가한 1,817,390천㎡(47.1%), 문교·사회용은 2.1% 증가한 346,463천㎡(9.0%)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2,738,500동(37.8%), 연면적은 9.9% 증가한 607,299천㎡(15.7%)이며, 2019년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73,653동, 연면적은 16,230천㎡이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 대비 6개 동이 증가한 113동이며, 5층 이하 건축물이 7,009천동(96.8%)이다.

개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700천동(78.7%), 연면적은 1,107,210천㎡(28.7%)이며, 법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498천동(6.9%), 연면적은 673,673천㎡(17.4%), 국·공유 소유 건축물은 202천동(2.8%) 및 213,254천㎡(5.5%)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74.46㎡이며, 전국 토지면적 대비 전국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0.11% 증가한 3.85%이다.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 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 편의 시 _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곤고한 날에 기도하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지금처럼 이 성경말씀이
마음에 와 닿은 적은 없다

현대문명의 급진적 발전속에
역대부자와 행운아가
물질의 풍요함을 알았고

나의 욕심에 따라
남을 헤아릴 줄 몰랐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남에게 상처주었던 시간들
이 순간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모두가 숨죽이며 살고있다

술에 취하고 도박과 마약
쾌락에 빠졌던 지난 시절
이제는 코로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

그 누구도 나의 잘남도
명예도 내세우기 보다
이제는 먼지보다 못한
보이지도 않는 역병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

돈과 명예 그것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세상사는 느낌 _ 김소희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을 맞이하는 자세

5학년을 시작하는 지금, 학생으로서의 1년간 진행할 마지막 작품을 준비하며 내가 배운 것들을 전부 쏟아낼 수 있으면서 후회하지 않는 작품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주제와 대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5학년의 졸업 작품은 사회문제와 연관시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주제, 대지 등의 모든 조건을 스스로 정하고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학 전부터 저학년까지의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 분명 졸업작품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설계를 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있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설계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져 갔고 내 작품이지만 확신은 없으며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형태로 만들어나가는 것, 건축물에 스토리를 더해가는 것과 설계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점점 더 복잡하게 흘러가는 설계가 나에겐 한계를 느끼게 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의문만 남긴 설계를 진행한 것 같았다. 당시의 크리틱을 넘기기 위한 내 설계가 결국 허물뿐이라고 느껴졌다. 이제는 그것을 반복하기 싫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건축을 사랑했던 이유는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한계점을 느끼는 그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땅의 이야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후, 장소의 이야기 등 모든 걸 담고 있는 건축물이 훌륭하다고 믿었고 그러한 건축을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이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며 흥미를 느끼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이제는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작품을 남겨두고 다시 초심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며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는 나를 표현할 수 있으며 후회하지 않는 작품으로 스스로에게 확신이 서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책 소개 _ 김영란 주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좋은생각' 월간

좋은생각 편집부 저 / 좋은생각사람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여러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는 현시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9년 국민독서실태에 따르면 성인의 종이책 연간 독서량은 6.1권으로 2년 전보다 2.2권이 줄었다고 나타났다. 또 성인 10명 중 4명은 책 1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내 나이 마흔 중반을 넘어선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대학 시절에 광주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서울로 여행을 가면 보통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였다.

지금이야 KTX나 단거리화 된 고속도로의 이용으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장거리 여행에는 MP3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따분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 따분함을 달래주는 책 한 권이 월간 '좋은생각'이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오빠, 언니를 보러 갈 때도 늘 손에 들고 다니며 읽었던 책이기도 했다.

그 당시 한 권당 2,000원 정도 했던 적당한 가격과 부담되지 않은 단편들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저명한 사람들의 글도 일반 독자들의 글도 함께 실으며 우리의 삶을 담담하고 평범하게 다루어 내어 책 제목대로 '좋은생각'을 하게 했다.

이번 5월호에는 일상에서 길어 올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와 독자적인 실행력과 통찰력으로 자신이 속한 분야의 지평을 열어 온 분들의 이야기인 '동행의 기쁨',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좋은 생각을 담은 '필자의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대략 30여 편의 짧은 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생각...

나의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생각'을 함께 읽어 보기에 동참해 봄이 어떠한가...

이 따뜻한 봄날에 말이다.

문의 | 1855-2240
준불연 DK보드 검색
www.dkboard.kr
난연액 도포
DK보드 | 주 | 디케이보드
BASF
네오폴(Neopor)에
특수 난연 코팅
화재 NO · 단열 YES
준불연가등급
DK보드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탄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
DK | 주 | 대 광 판 넬
| 주 | 디케이보드